

- 녹취록 -

새로운 좌파정치를 위한 '시민동맹'

발표 : 리지안 알레자(Lysiane Alezard) CIDEFE교육총괄 일드프랑스의원

토론 : 김대성 민주노동당 노동위원회 노동위원

황희준 민주노동당 서울시 구로구위원회 당원

사회 : 박미진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전 사무처장 전 경기도의원

박미진 : 오늘 포럼 첫 일정부터 지금까지 알레자의원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시테프교육으로 너무나 친숙하고 낮은 알레자의원인데, 깊은 정을 담은 큰 박수 부탁한다.

알레자 : 아무래도 처음에 박수부터 받는 게 낫겠다. (웃음) 이미 내 얼굴을 아는 사람도 있을 테고, 자주 본 사람도 있어서 기쁘다. 리지안 알레자다. 나는 지방의원(élu(e) local(e))이면서 광역의원(élu(e) régional(e))이다.

2002년부터 파리 근교에 야당이 집권한 이씨레물리노(Issy les Moulineaux)라는 도시의 의원(élu(e) local(e))으로 일하고 있다. 그리고 2004년부터 좌파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일드프랑스(Ile de France) 의원이기도 하다.

간단히 일드프랑스를 소개하고 주민과 의원이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지 설명하겠다. 특별한 모델은 아니지만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했던 일들에 대해 설명하겠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은 일드프랑스 헤지옹(광역도)이다. 일드프랑스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 (웃음) 우리 일드프랑스는 프랑스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일드프랑스의 예산규모는 5조유로로, 1100만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고 1200개의 코뮌이 있다. 일드프랑스는 1982년부터 지방분권법(droit de la décentralisation)에 의해 발전되어 온 30년이 채 안된 행정구역이다. 헤지옹에서 전문적으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교육과 대중교통, 직업교육이다.

일드프랑스에는 주민이 가장 많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프랑스의 전형적인 농업발달지역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가장 불평등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빈부격차가 심하고 사람들이 즐겨 찾지 않는 지역이다. 불평등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 『promouvoir région France』는 일드프랑스를 유럽에서 가장 발전이 필요한 네번째 지역으로 언급하고 있다. 우리 헤지옹이 가진 좋은 점 하나는 투쟁과 혁명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주목할 만한 지역이다. 이주의 역사가 대표적이다. 사회문화적으로도 매우 풍부하고 중요한 역사를 가졌으나 사람들은 그만큼의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우리의 동맹 대상은 그 어떤 정당이기 전에 바로 시민이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모든 지역이 전세계적 위기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 위기를 맞고 있다. 전국적으로 주민을 위한 예산이 많이 감소했고 사람들의 월급도 많이 줄었다. 많은 주민들이 정치경제적 위기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데 각 정당들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대답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그룹은 2004년 선거 전후로 지역의 운영과정에 어떻게 하

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왔다.

2004년 3월에 있었던 선거에서 우리가 역동적으로 정치적인 것을 창조했는데, ‘주민참여민주주의’라는 슬로건이다. 그것이 성공했다. 많은 사람들이 대화와 논쟁에 참여했다. 카페에서, 거리에서, 만남의 장소에 모여서 역동적인 대화를 나눴다. 이렇게 우리 헤지용이 열린 공간에서 역동적인 논쟁을 이끌어낸 유일한 헤지용이다. 공산주의자뿐만 아니라 여러 협회, 노동조합 운동가들과 후보명부를 함께 작성했다. 다른 모임들과도 함께한 다양한 캠페인들은 활기를 찾았고 특히 젊은 층이라는 새로운 지지세력을 얻게 됐다.

이전 시간에서 2010년 지방선거에서의 사회당과 공산당의 선거연합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2004년에 비슷한 경우가 있었다. ‘일드프랑스 주민들의 요구에 더 나은 답을 할 수 있는 좌파정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했었다. “일드프랑스에서 어떻게 하면 좌파정치를 더 잘 구현할 것인가?” 좀 더 왼쪽으로, 좌파적인 정치성향을 밀어붙이고 새로운 지지세력을 영입하고, 시민들과 함께 더 왼쪽으로 가기 위해 우린 그런 질문을 던졌다. 수많은 토론을 하면서 우리의 동맹 대상은 그 어떤 정당이기 전에 바로 시민이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우리가 사회당을 더 좌파쪽으로 견인하고 새로운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과 동맹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선거동맹에서 공산주의자들은 시민대안(Alternative Citoyenne)이라는 조직과 손을 잡았다. 이는 이제껏 선보인 적 없는 새로운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갔다. 동맹의 힘은 득표율로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가 역동적으로 창출해낸 에너지는 1차선거에서 약 7.5%의 득표율을 얻어냈다. 2차선거에서 우리는 당연히 좌파를 지지하기로 했다. 우리는 사회당, 녹색당과 다시 만나기로 결정했고 모든 좌파들이 들어간 후보명부를 만들었다. 1차선거의 성공은 2차선거에서 더욱 좌파다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힘으로 되었다.

“의원활동의 핵심은 주민의 지위를 보장하는 문제였다”

다음 광역도의원 선거를 6개월여 앞둔 오늘, 기간 활동에 대한 평가를 해볼 수 있다. 가장 살기 어려운 지역에 사는 주민을 위해 우리가 공동으로 함께 했던 일들인 대중교통의 무료화, 주거환경 개선 등이 잘 됐다고 본다. 우리가 공동으로 해낸 성과에 대해 알리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테면 체류증이 없는 사람, 실업위기에 처해있는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교수나 학교, 교육시설 등의 도움으로 함께 해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했는지 궁금하겠지만 두가지 초점을 강조하겠다.

앞서 설명한 것의 본질은 결국 일드프랑스에서 주민들이 차지하고 있는 지위문제다. 일드프랑스에서의 주민의 자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나는 이것이 현실과 괴리된 상아탑 안에 머물지 말아야 한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현실에 구속되지도 말아야 한다고 본다. 우리는 맡겨진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 많은 일을 하려고 했다. 이러한 노력을 가장 잘한 일이라고 평가한다. 지난 임기 6년여 동안 일을 잘하기 위해 매일 회의를 했고, 회의하지 않는 시간에는 직접 주민들을 만났다.

일드프랑스 의원 209명중에 공산주의자그룹과 함께 일한 26명의 의원은 늘 주민들 속에서 그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기위해 노력했다. 우리의 의원활동의 핵심은 주민으로서의 지위를 보장하는 문제였다. 그러나 일드프랑스가 수도권으로서 가지는 특수한 조건으로 인한 어려움도 존재했다. 일드프랑스는 매우 광범한 면적을 관할하고 있으며 1100만명의 주민을 책임지고 있다. 광범한 모든 곳의 주민들에게 우리의 활동내용을 전달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했다.

때론 주민들이 위임한 역할의 무게가 어렵게 다가오기도 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해 이것을 꼭 지출해야 한다.”, “당신을 위해 우리가 이렇게 했다. 당신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말하는 주민들이 있었다. 물론 의원들은 스스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재정적인 한계를 무시할 수 없었다. 프로그램을 실현하기 위해선 물적 토대가 중요한데, 헤지용이 해야 할 일에 비해 재정상황은 너무 열악했다. 의원으로서의 활동을 스스로 잘 보장하는 것 역시 중요한 문제였다. 의원역시 평범한 사람으로서 직장에 다녀야 하고, 가족도 돌봐야 하는데

주민들과 함께 할 시간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도 쉽지 않은 문제였다.

선거를 여섯달 앞두고 아직 구체적인 선거전략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고 말하면 놀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선거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민들을 만나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다. 비밀스럽게 복도에서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과 소통하며 답을 얻어야 한다. 가장 고심하는 문제에 대해 물어보라. 어떤 단체, 어떤 세력과 선거동맹을 맺을 것인지, 선거에서 진정한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동맹이 필요한지 우리 가까이 있는 주민들에게 솔직하게 물어보면 답이 나올 것이다.

일드프랑스는 우파가 반드시 탈환하고자 하는 수도권이다. 사흐코지가 내년 헤지옹선거에서 일드프랑스의 후보명부 작성을 책임지는 사람을 직접 지정했다. 그래서 우리는 일드프랑스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일드프랑스의 주민들이 우리들의 후보명부를 작성하도록 그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모아낼 생각이다.

박미진 : 참고로 일드프랑스는 2004년 선거에서 좌파가 승리했다. 그 전에는 우파가 승리했고, 2004년 헤지옹선거에서 전체 209석중 사회당 69석, 녹색당 24석, 공산당 등 좌파가 122석 과반수 이상을 점했다. 아, 내가 알레자에 대한 애정이 너무 넘쳐 박수 보내는 것을 놓쳤다. 뜨거운 박수 바란다. 질의응답과 토론을 시작하겠다.

“독립성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동의 의제를 찾아야만 한다”

황희준 : 우선 내가 살고 있는 서울시 구로구와 자매결연도시인 이씨레물리노(Issy les Moulineaux)에서 진보적으로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알레자의원을 만나 정말 반갑다. 내년에 중요한 선거가 프랑스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는데, 알레자의원을 만나며 두 지역에서 꼭 진보적인 사람들이 많이 당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결의가 생겼다는 말을 먼저 전하고 싶다.

시민대안이라는 세력과 함께 후보명부를 작성했다고 했는데 한국으로 치면 시민단체에 해당되는지, 어떤 활동을 하는 세력인지 궁금하다. 아울러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한다. 한국에서도 정당간 연대연합도 중요하지만 시민단체와 함께 내년 선거를 준비하는 것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교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알레자 : 먼저 우리 이씨레물리노와 구로구의 진보적 발전을 위해 당신이 출마해서 정말 당선되길 바란다. 2004년 우리가 만들었던 후보명부를 크게 구분해서 두개 조직이 우리와 함께 작성했다. ‘MRAP’라는 인종차별주의에 반대하는 조직과 노동자, 세입자, 조합원, 배우, 코미디언 등 대표자로 이루어진 조직이다. 우리는 각각의 조직에 대한 독립성을 존중하고 그들이 지닌 색깔이 반영되도록 자연스럽게 후보명부를 작성했다.

한편 독립성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동의 의제를 찾아야만 한다. 이를테면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공동의제로서 대중교통과 관련한 정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어떤 경우든 모든 일드프랑스 주민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그러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다. 임금이 매우 적거나 실업상태이기 때문에 대중교통비를 낼 수 없는 경우도 많다. 인구수에 비해 대중교통 운행수도 굉장히 적다.

다양한 요구에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노동조합을 통해 지역의 힘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두명의 의원이 대중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에 투입됐다. 처음 한 일은 주민들의 힘과 지혜를 발동하는 위원회 체계를 세우는 것이었다. 현장에 투입된 의원들은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위원회를 만들고 회의를 조직했으며 각 노동조합에 참여를 제안했다. 그래서 모든 노동조합들이 위원회로 모이게 됐고 시위도 직접 하게 됐다. 노동조합들은 우리 정치그룹의 행동, 모임, 세미나 등에도 함께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활동의 폭과 공동의제를 넓혀갈 수 있었다. 대중교통문제뿐만 아니라 실업문제, 철도문제, 고용문제 등에 대해서도 공동행동을 할 수 있었고, 장애와 고용문제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한 프로젝트를 만드는 데 모든 노동조합이 함께했다. 이 모든 활동의

결과 실업자들이 최저생계수당(RMI : Revenu minimum d'insertion)을 받게 됐고, 이들은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우리는 18조유로에 이르는 예산을 확보했다. 주민의 힘과 지혜를 발동한 결과 이 프로젝트를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박미진 : 참고로 사회당을 비롯한 정당과는 후보명부를 함께 작성하지 않았다. 새로운 좌파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과 선거동맹을 맺었고, 그에 따라 정책을 수립하고 실현해낸 과정이 참으로 인상적이다.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마지막 질문을 받고 마무리하겠다.

김대성 : 세가지 질문이다. 선거운동이나 의정활동 기간 노동조합과 함께한 활동경험과 의원겸직 현황에 대한 설명을 부탁한다.

알레자 : 여러가지 예가 많은 데 몇가지만 소개하겠다. 교육분야의 경우 교수노동조합이나 학부모조합 활동가들과 정책을 생산하고 더 나은 교육조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3년 전부터 교육이 심각한 문제로 되고 있는데, 1년동안 1만6000개의 일자리를 없애는 법 때문에 교수들에게 고용문제가 생기고 교육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문제로 교수들을 자주 만나고 교육부에 반대하는 행동들을 함께 하고 있다. 대중교통분야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함께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지역에서 얻은 투쟁의 경험을 간단히 소개하면, 원거리통신분야에서 굉장히 발달한 센터가 이씨레 물리노에 있다. 센터는 노동자들을 해고하려고 했고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투쟁에 나섰다. 이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헤지옹 회의를 조직했는데,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해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리와 방안을 함께 만들었던 경험이 있다.

의원겸직 현황에 대해 설명하면, 대부분 의원이 이미 직업이다. 물론 영구적인 직업이 아닌 사람도 있다. 우리 그룹 안에서는 교육자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개인적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있다. 우리 그룹의 부대표는 임기 동안 다른 직업을 갖지 않기로 결정했다. 나는 시테프에서 일하므로 1900유로의 월급을 받는데 다시 당으로 돌린다. 대부분의 우파 의원은 월급을 받아 돈을 모으는 데 치중하지만, 나는 의원을 내게 주어진 하나의 임무로 생각하기 때문에 월급을 모으는 데 관심을 두지 않는다.

박미진 : 알레자의원이 6일 내내 우리와 함께 했다. 시테프교육 4일과 시테프방문간담회 1일, 그리고 포럼 첫날인 오늘까지 성의를 다해 민주노동당 당원들과 함께 했다. 알레자의원의 따뜻하고 세심한 배려는 우리에게 늘 감동이었다. 오늘 너무 아쉽지만 다음을 기약하며 뜨거운 박수로서 보내드리자.

알레자 : 여러분들이 가고 나면 내 안에 큰 빈 자리가 생길 것 같다. 지난 6일은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계속 많은 교류와 연대를 맺어 나갔으면 한다. 여러분들은 더 성장하고 배우기 위해 열린 마음으로 이곳까지 왔다. 그런 여러분의 자세와 열정을 프랑스 활동가들이 정말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뤼마니떼축제장에서 보자. 여러분들이 꼭 선거에서 승리하길 바라고, 여러분의 민주노동당이 더욱 강해지길 바란다.

박미진 : 깊은 정을 담은 박수로서 마치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끝>